



지하철 좌석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이다. 그러므로 다소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다른 승객을 위해서 기본예절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중 교통수단에서 기본 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회피하고 참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러한 순간을 피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가 경험한 불편함

■ 이 외 지인들이 경험한 불편함

- 임산부가 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 다리를 넓게 벌려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실수로 옆 사람 가방 끈을 깔고 앉는 경우
- 한 사람이 두 칸을 사용하는 경우

- 형견의자의 경우 앉기가 찝찝하다
- 스테인리스의자에 앉으면 미끄러질 때가 있다.



형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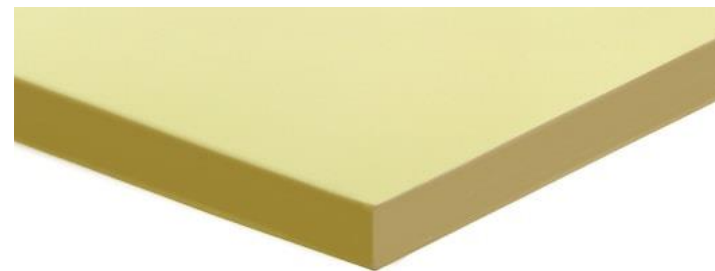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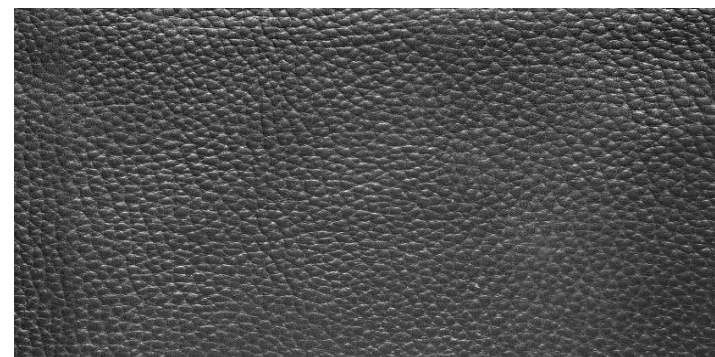
- 클리닝이 용이하지 않음
(액체나 음식 등이 묻었을 경우 완전히 처리X)
- 먼지↑
- 진드기↑



스테인리스

- 클리닝 가능
- 먼지↓
- 진드기↓
- 딱딱함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부분 의자를 철제로 바꿨다가, 승객들이 불편하다고 민원하는 바람에 최근 새로 나오는 전동차까지도 다시 형겉 의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합성피혁+스펀지

버스좌석 재질

- 물에 강해 클리닝이 가능
- 가격 저렴
- 일부 신체가 저리는 것을 방지
- 진드기↓
- 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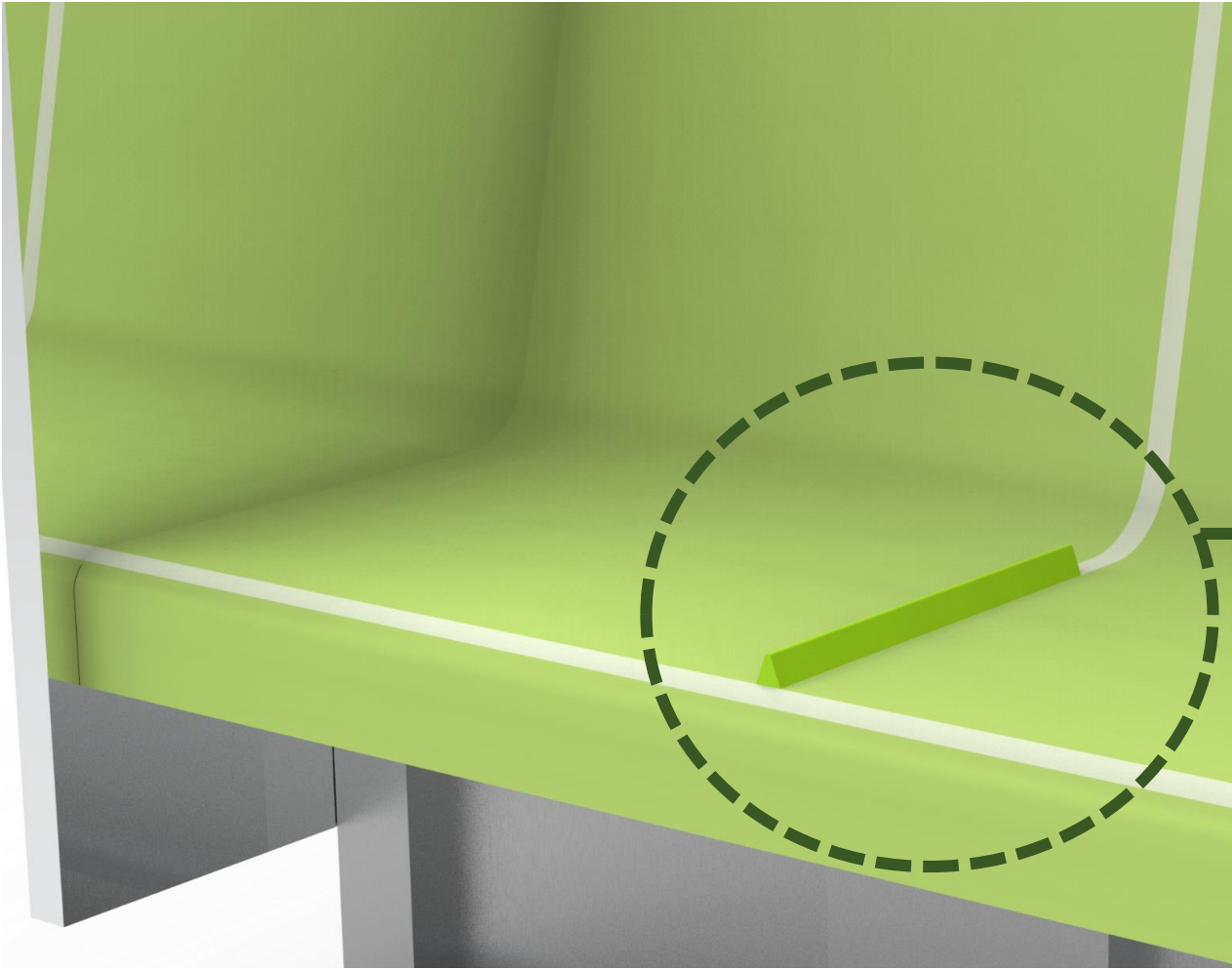
try-angle

작은 세모들만으로도 지하철 꺾벌 방안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꺾벌 방지
- 두 칸 사용 방지
- 그린 색상으로 눈의 피로도를 낮춤
- 파팅라인으로 자리를 구분했던 기존 좌석을 다른 컬러를 사용하여 각 자리를 구분 할 수 있도록 함
- 취객들의 취침 방지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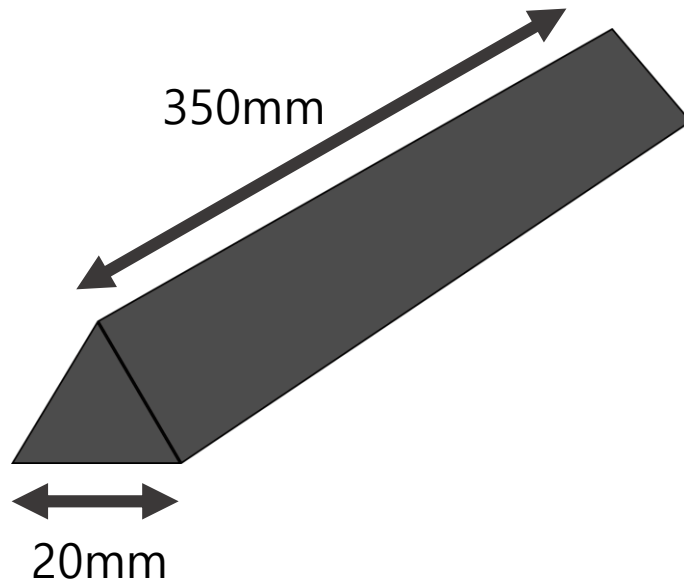
외부-합성피혁
내부-철제

- 뽕족하지 않아 다칠 위험이 없음
- 외부 재질이 좌석과 동일해 클리닝이 간편함

크기

좌석-400mm

Try-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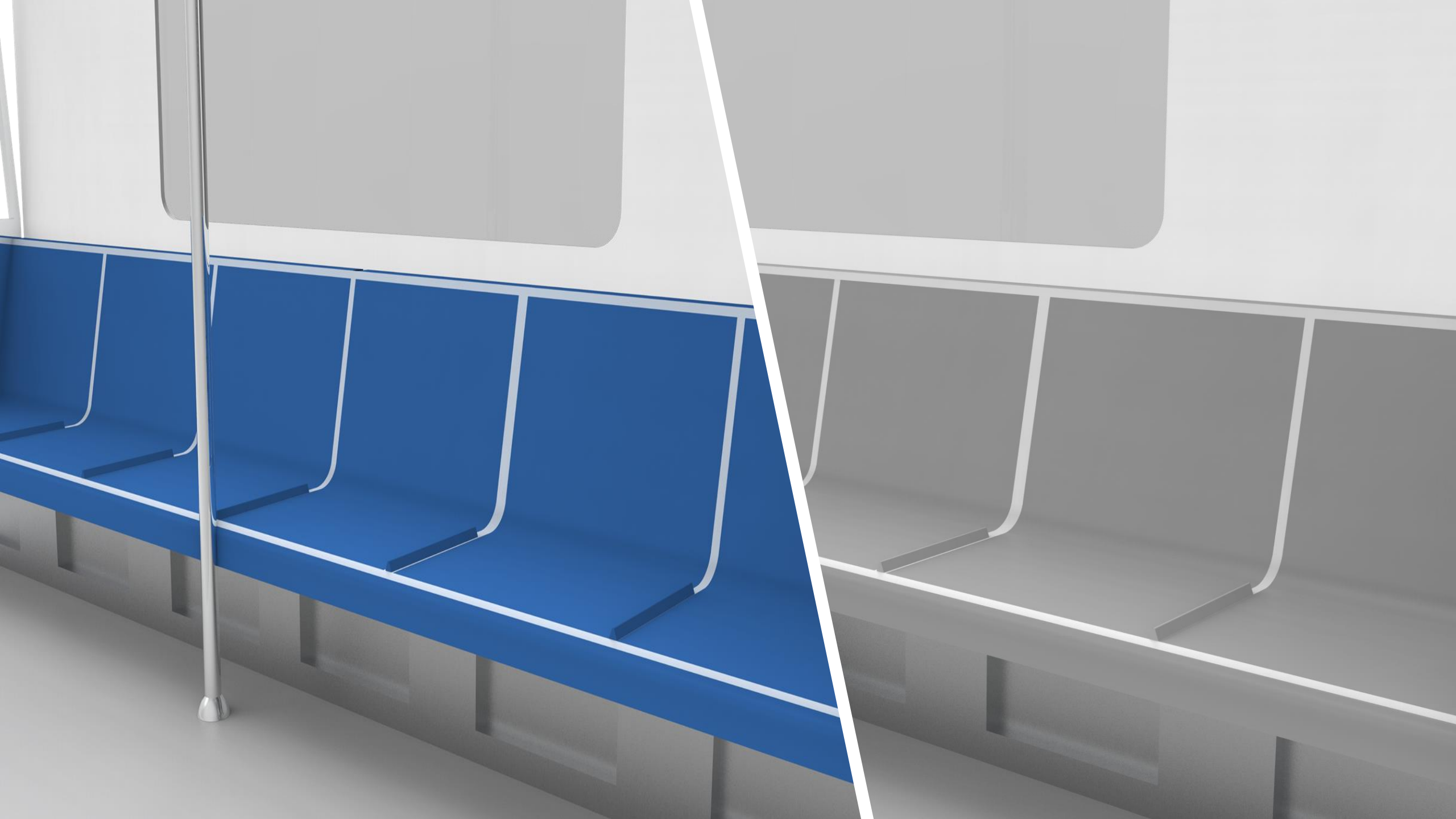
가격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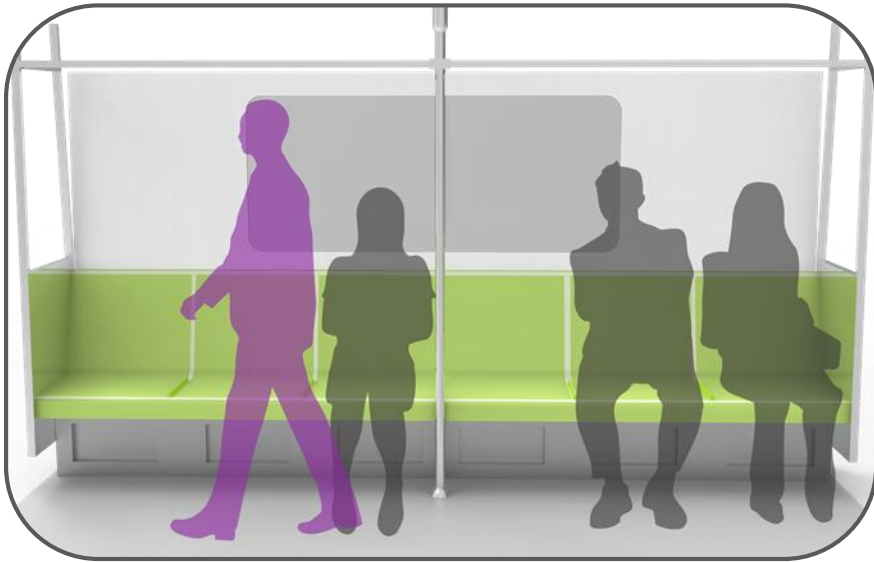
한 좌석 당 약 5,960~6,950원

Try-angle

10개를 기준으로 생산 할 경우
개당 약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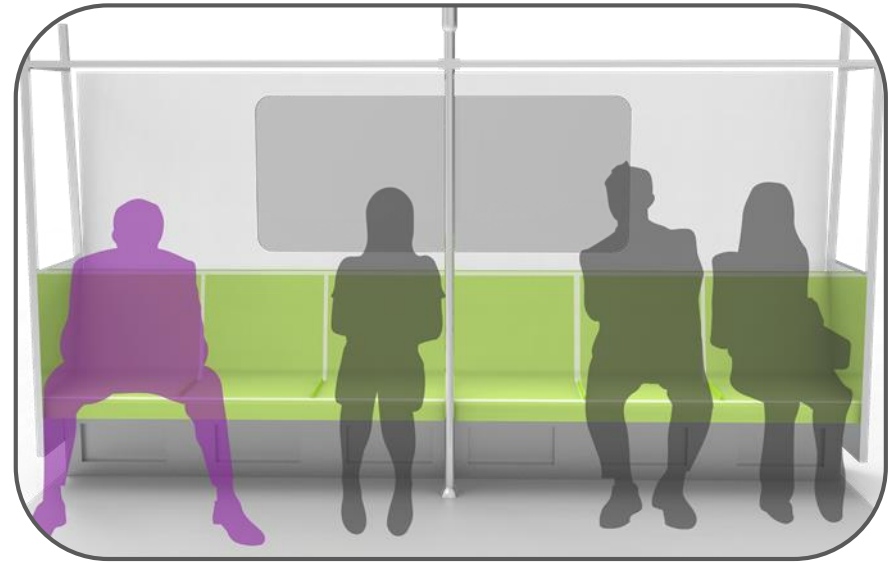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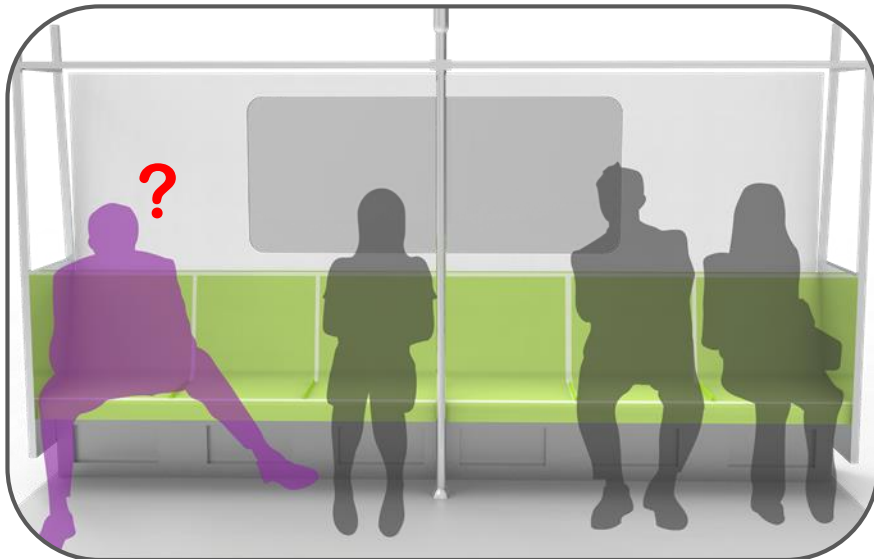
A는 평소 다리를 벌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발견한 김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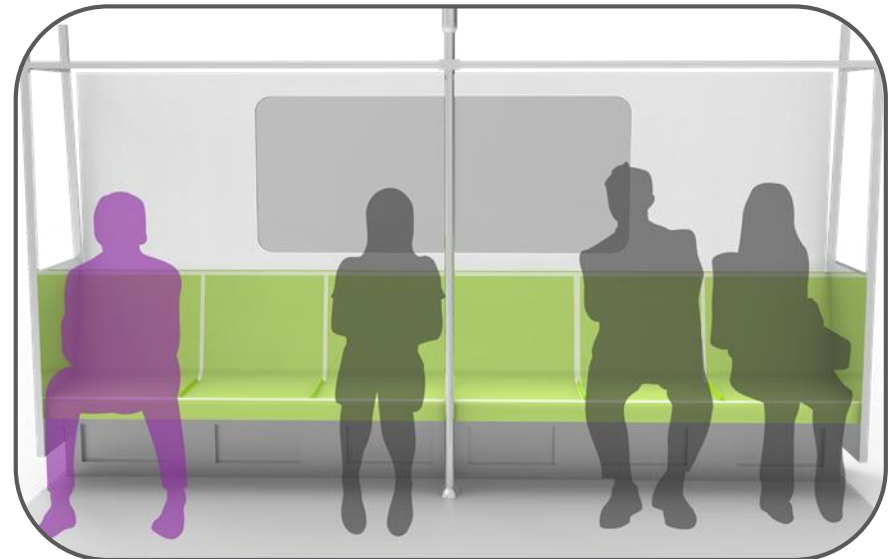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는 다리를 벌려 자리에 앉는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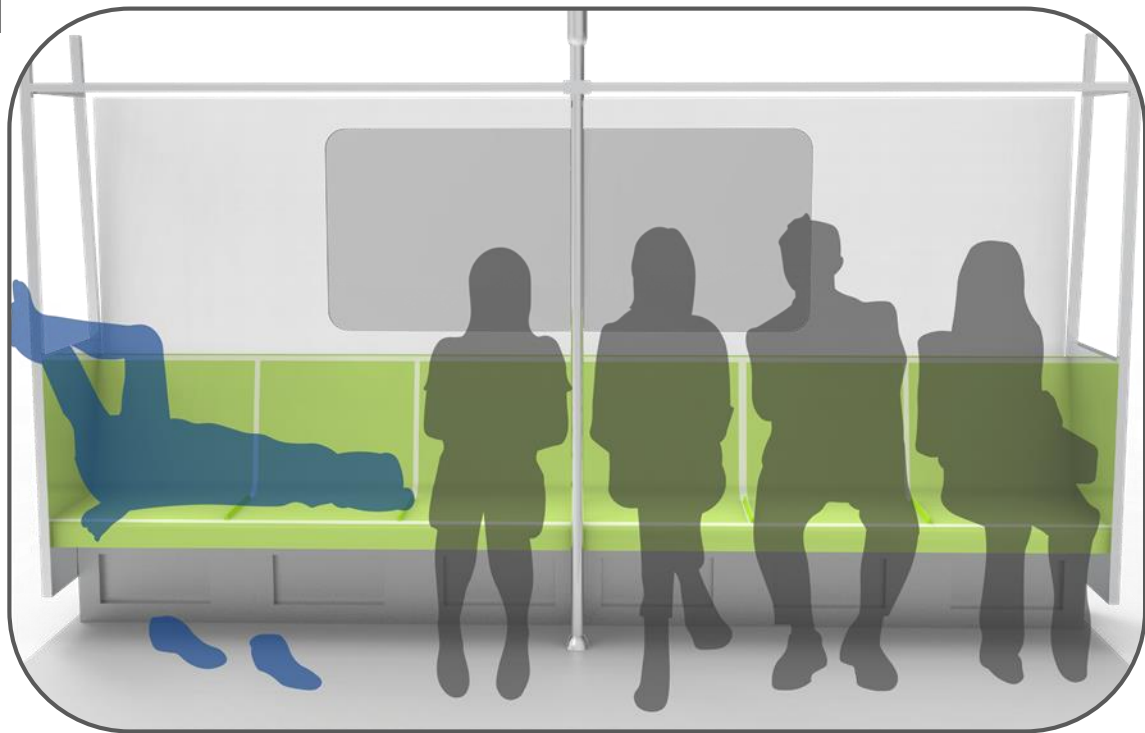
허벅지에서 눌리는 불편함을 느낀 A는 'try-angle'을 발견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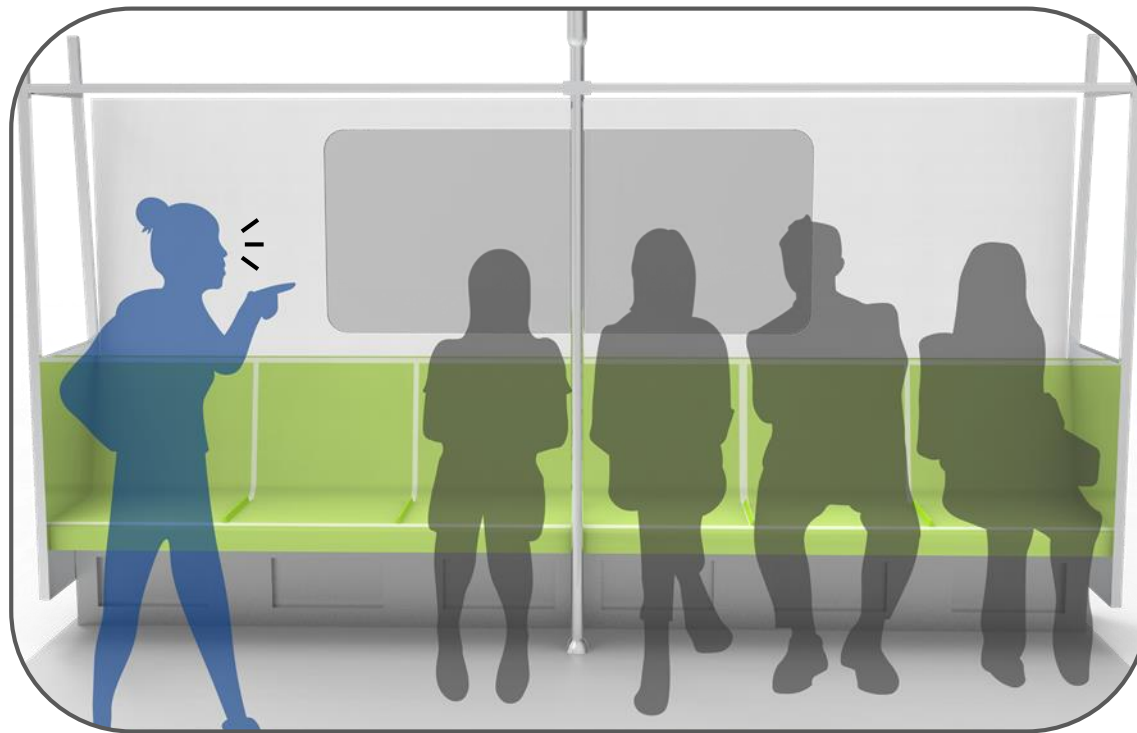
불편했던 A는 자리를 고쳐 앉는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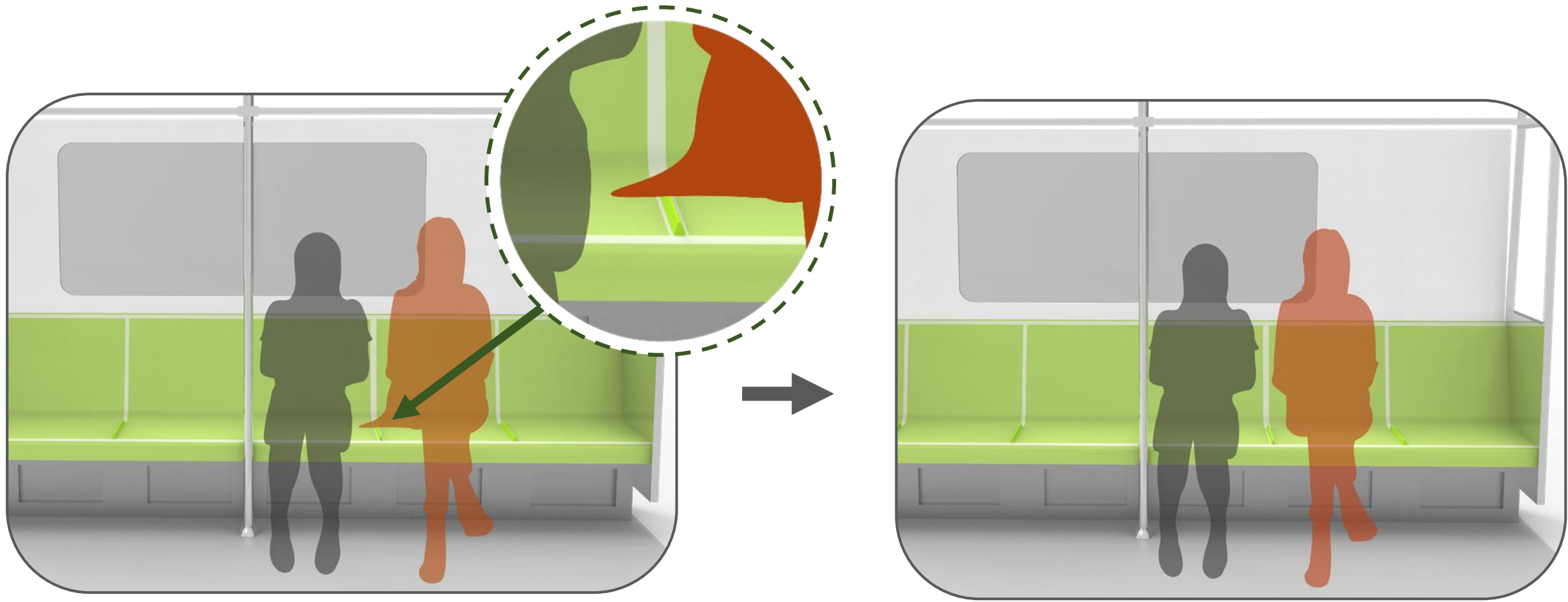


노숙자 B는 추워진 날씨 탓에 지하철 안에 몰래 들어와 잠을 청하려 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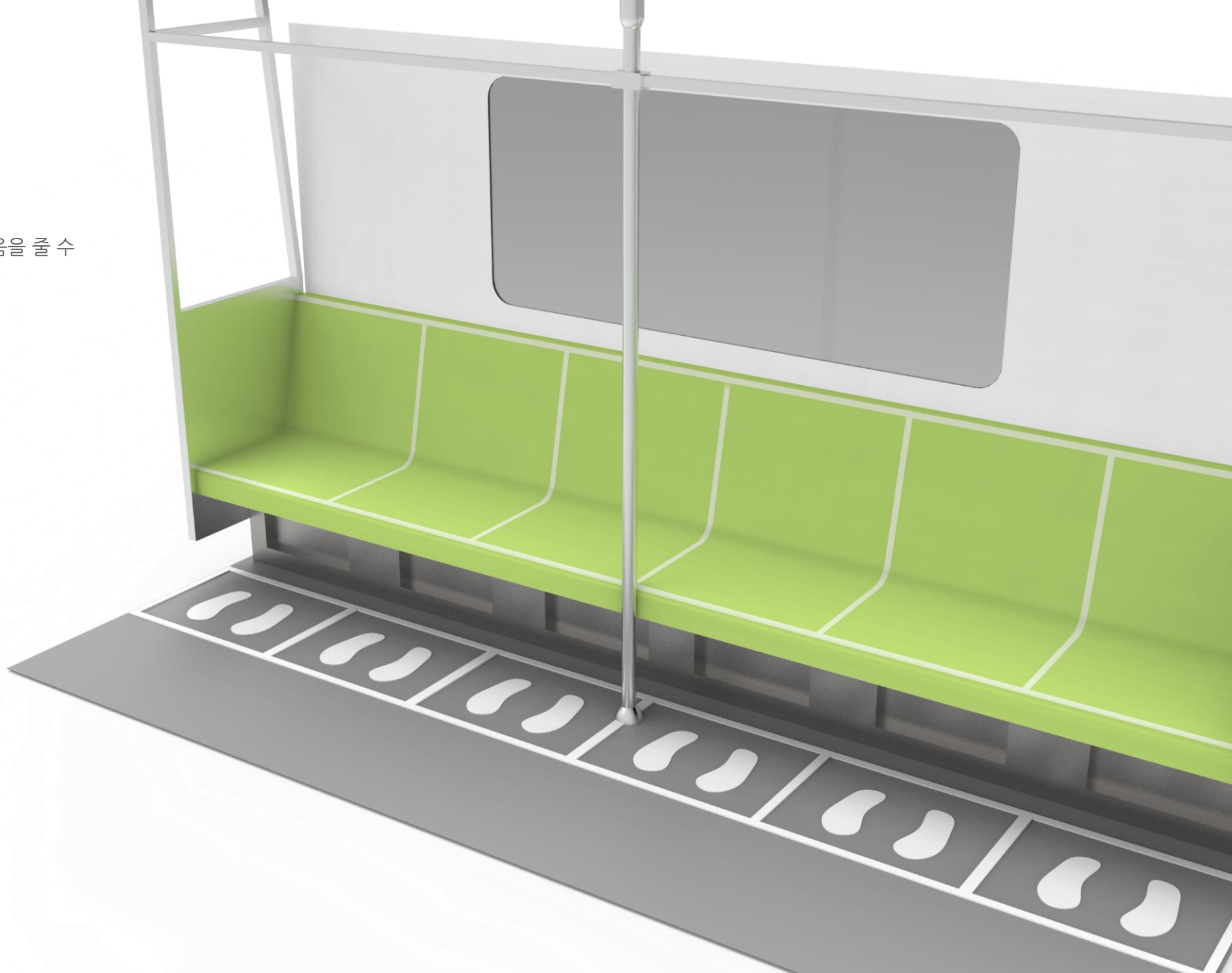
'try-angle' 때문에 등이 배겨 눕지 못한 B는 옆 사람들에게 괜히 고함을 지르고 지하철 밖으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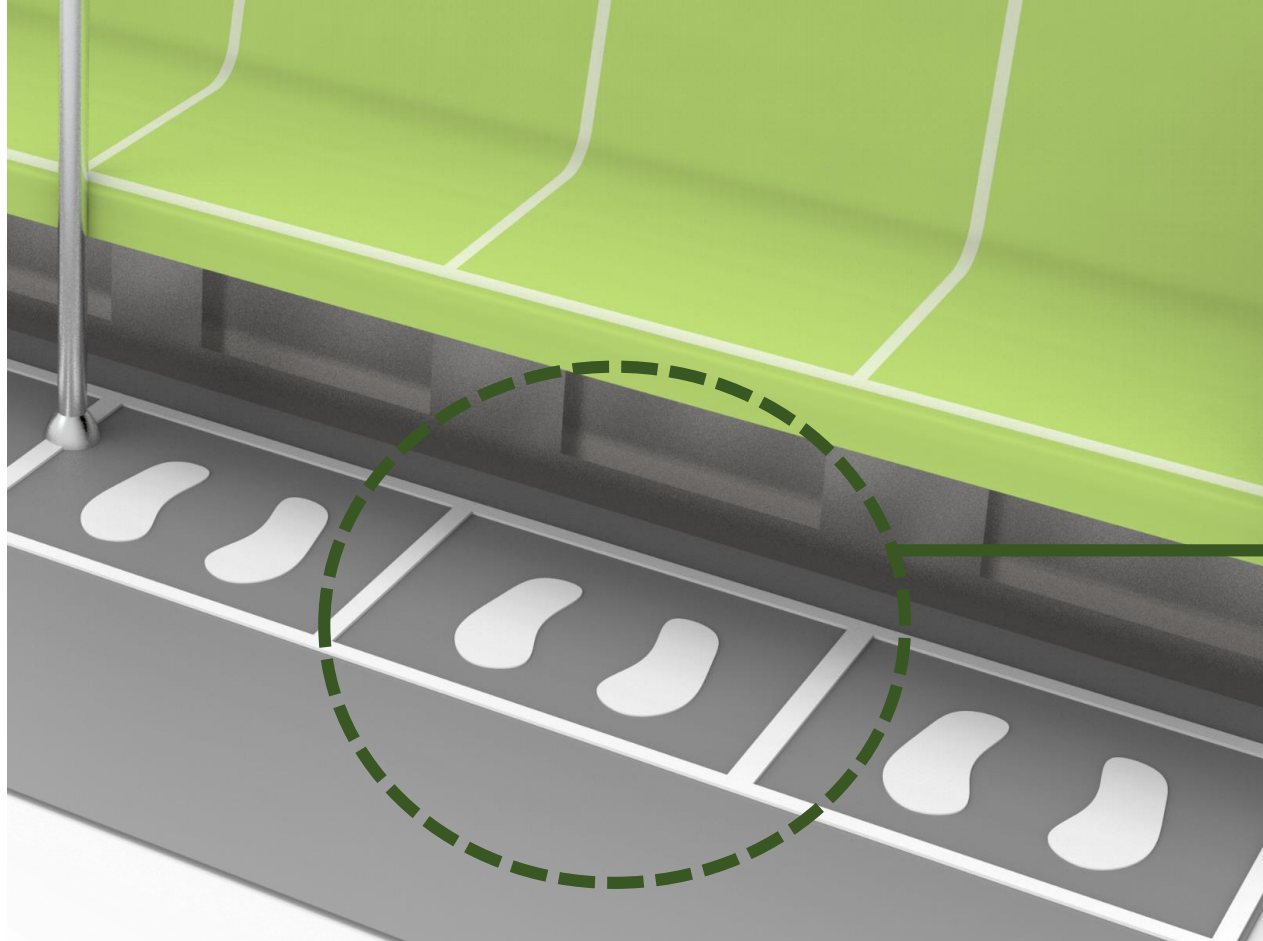


‘흰 선’과 ‘try-angle’로 부터 자신의 겹옷이 옆 사람 자리로 넘어간 것을 본 C는 옷을 치운다.

모아 캠페인

다리를 벌리지 않고 두 발을 모아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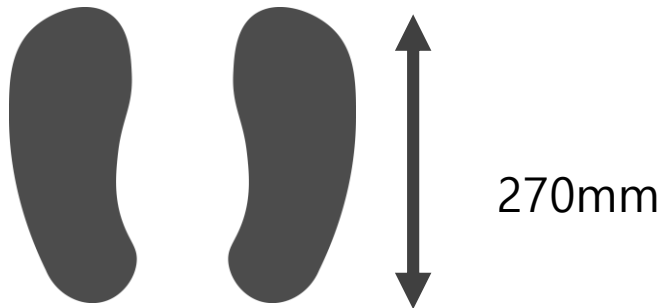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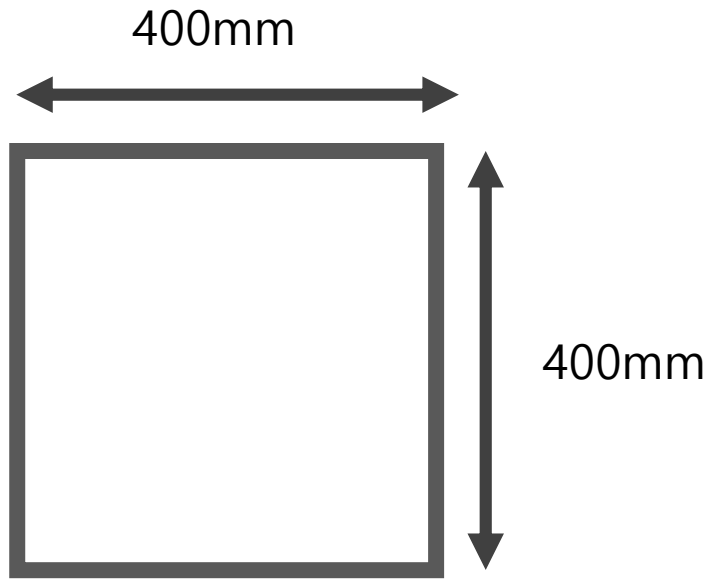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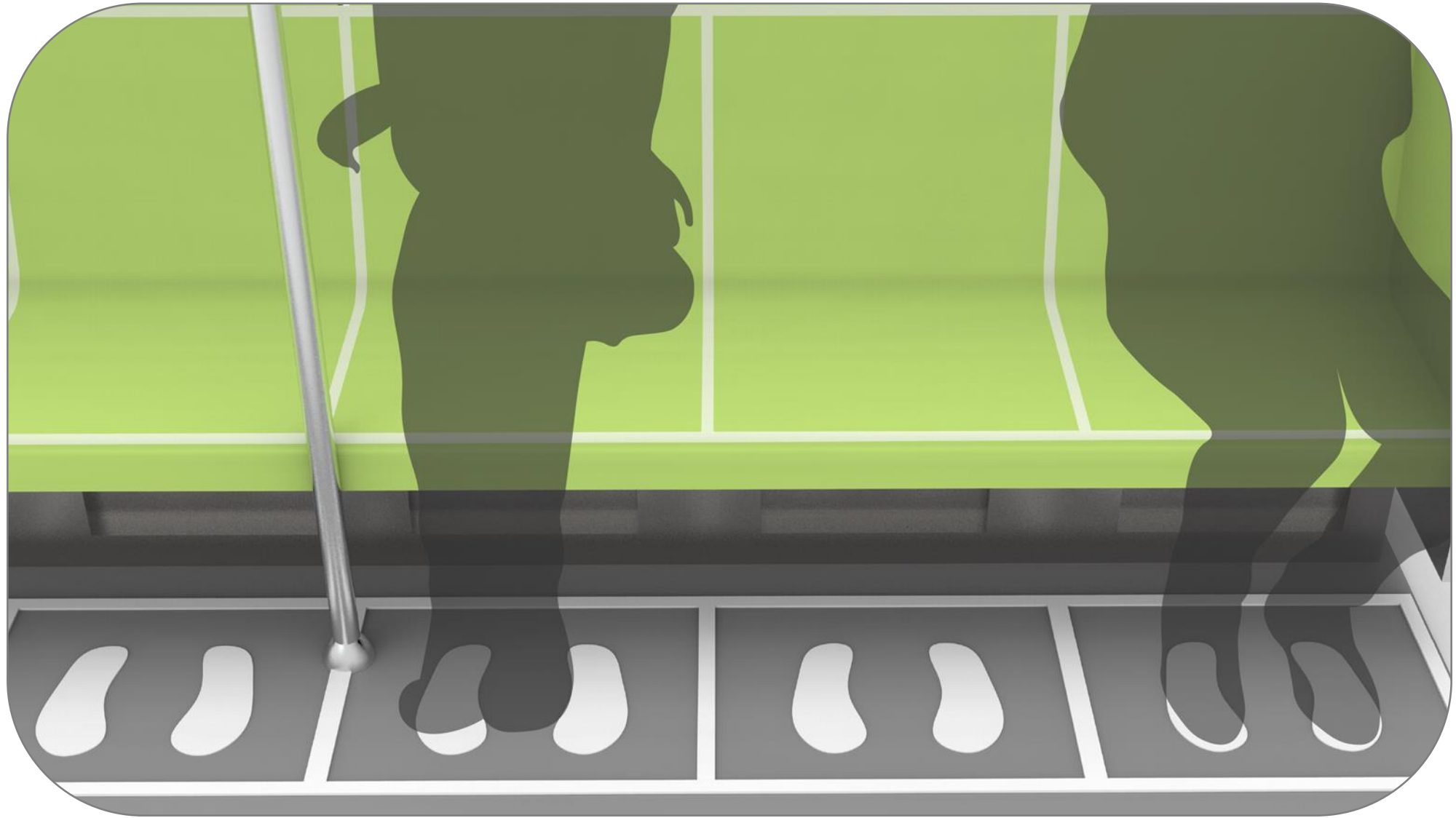
Pvc스티커
(일반적인 방수 스티커)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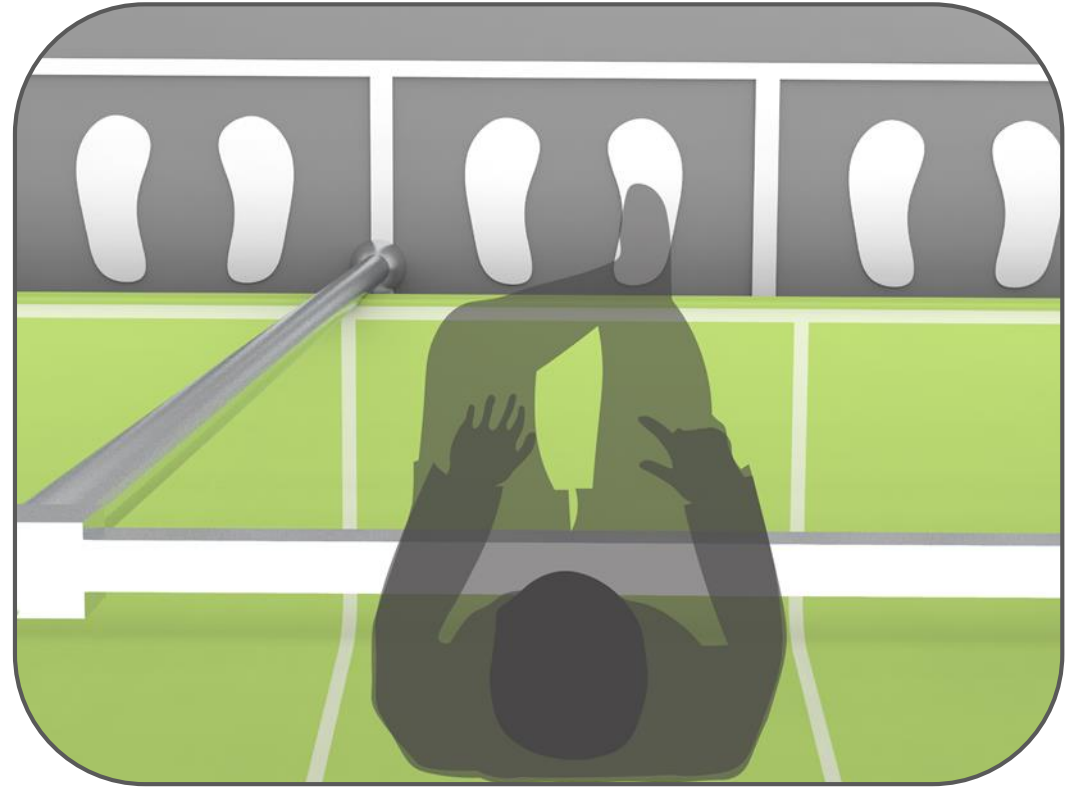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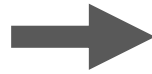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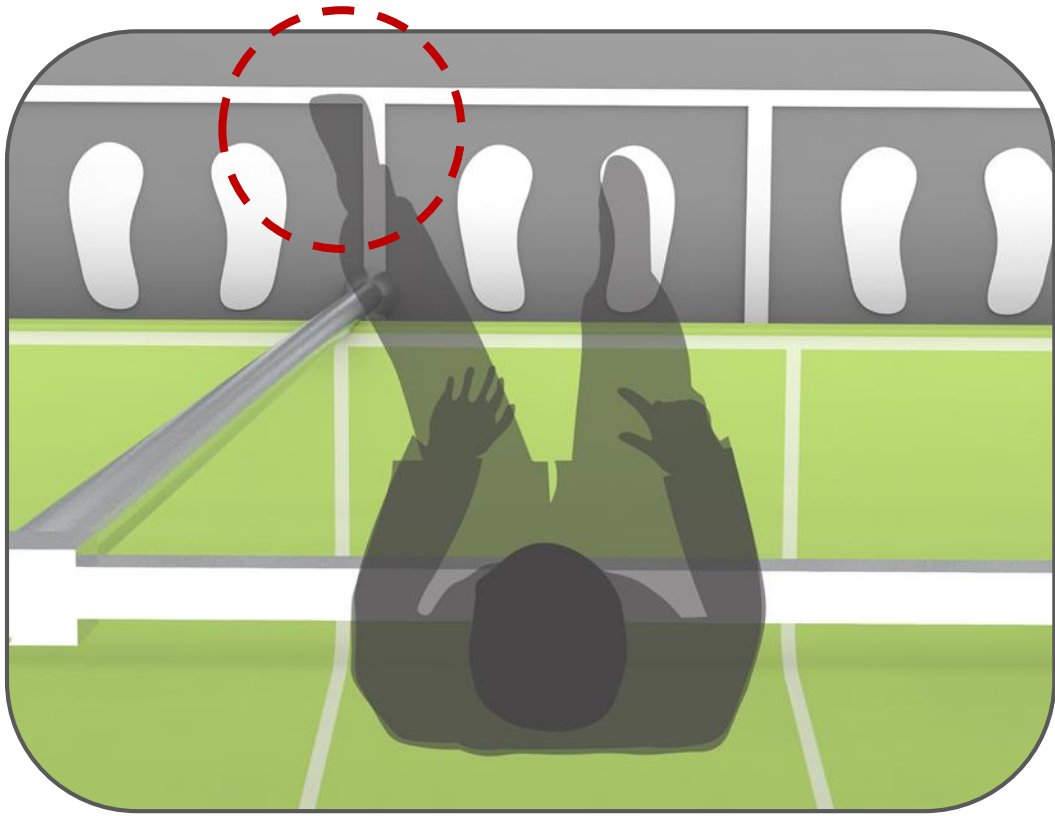


가격

1000개를 기준으로 대량 생산 할 경우
한 좌석당 약 632원



발바닥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해 스티커에 발을 맞추고 싶게끔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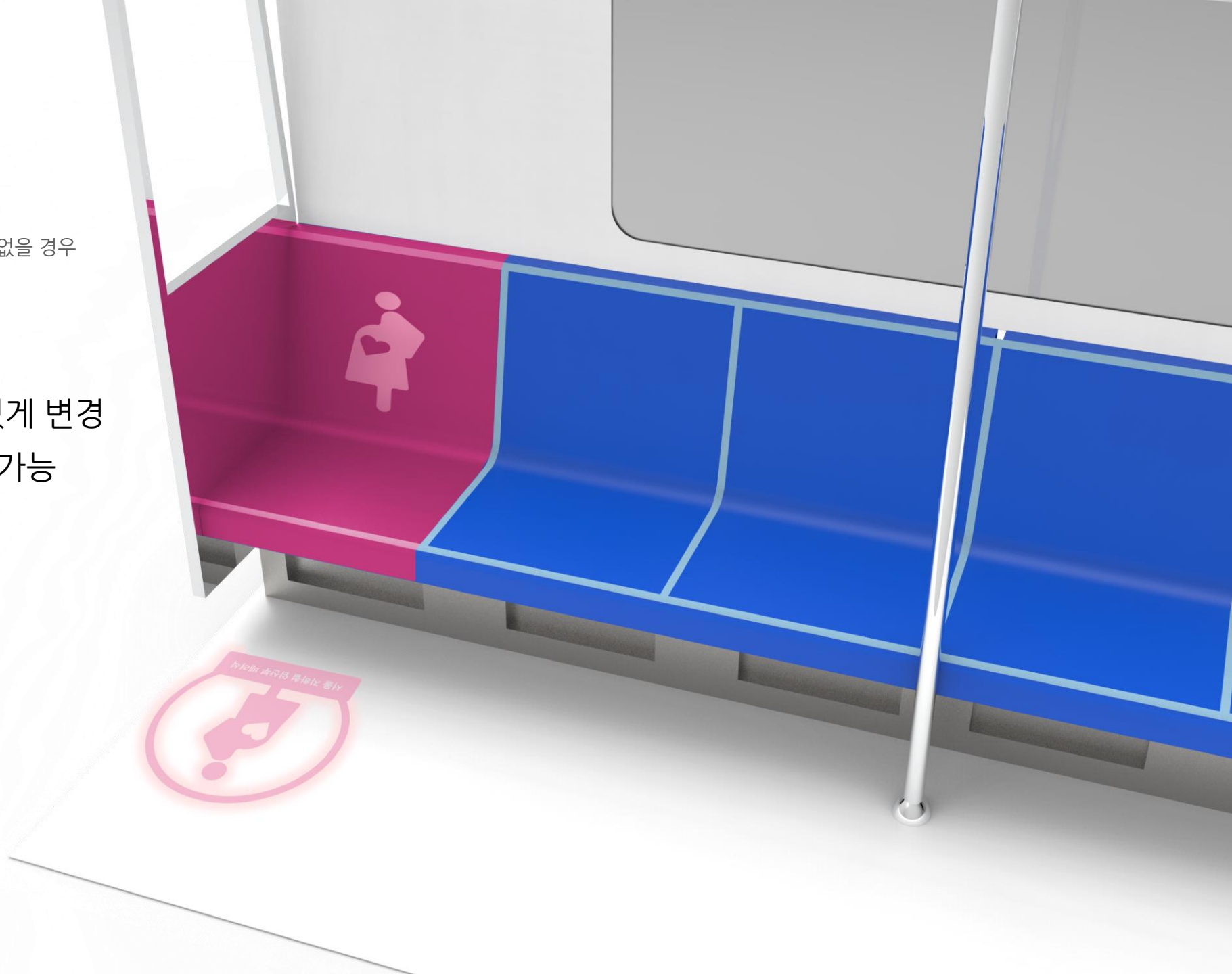


앞는 도중에 흰 선을 넘어버린 발을 안쪽으로 모은다.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만을 위한 좌석이 아닌 배려석으로 임산부가 없을 경우 일반인들도 착석 가능한 좌석을 제작하고자 한다.

- 기존 패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변경
- 일반인과 임산부 서로가 사용 가능



초기

자리에 앉아있다 임산부가 오면 양보하는 방안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잘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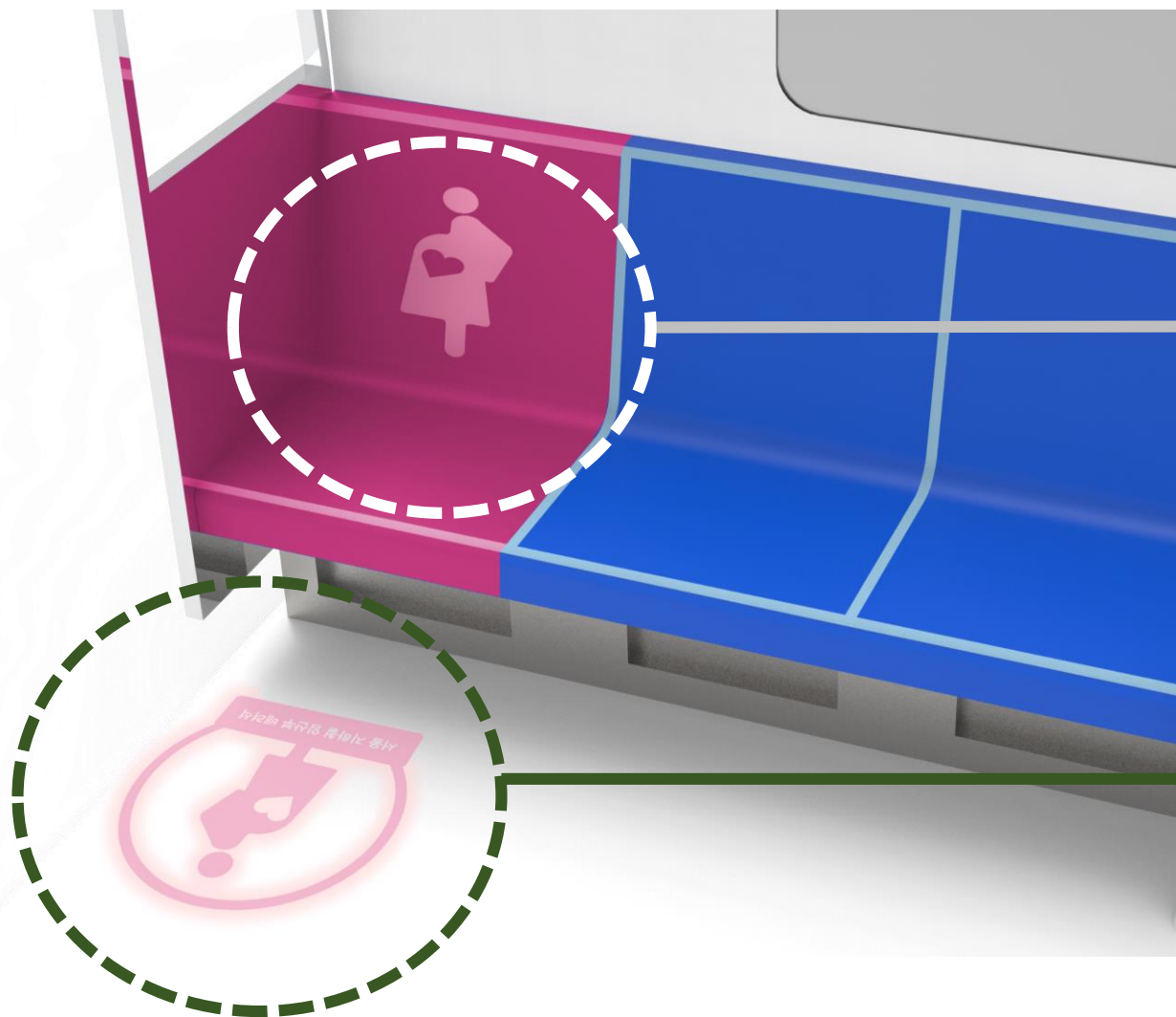
현재

임산부 배려석은 기본적으로 '비워 두기'로 캠페인을 진행중
이 또한 홍보가 되지 않아 여전히 민원 1순위



해결방안

초기로 돌아가 임산부가 없을 땐 사용가능, 임산부가 있을 경우 배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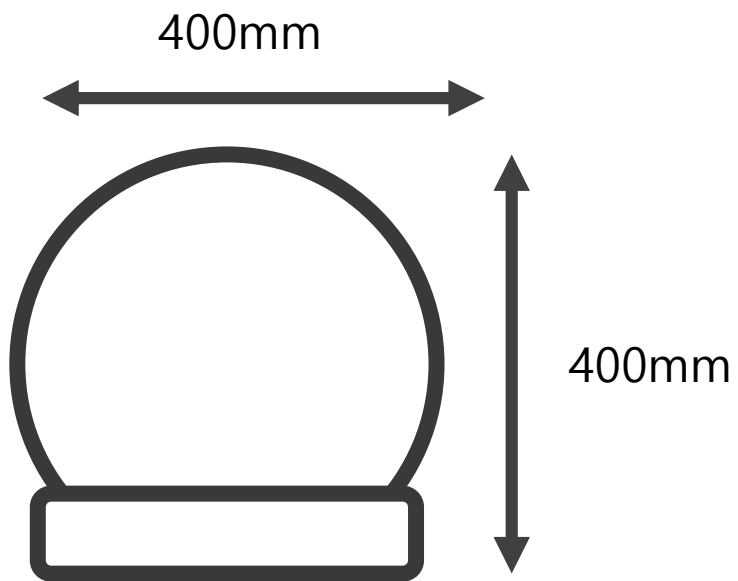
재질

특수보온섬유
(온도에 따라 색이 변화함)

재질

스마트LED조명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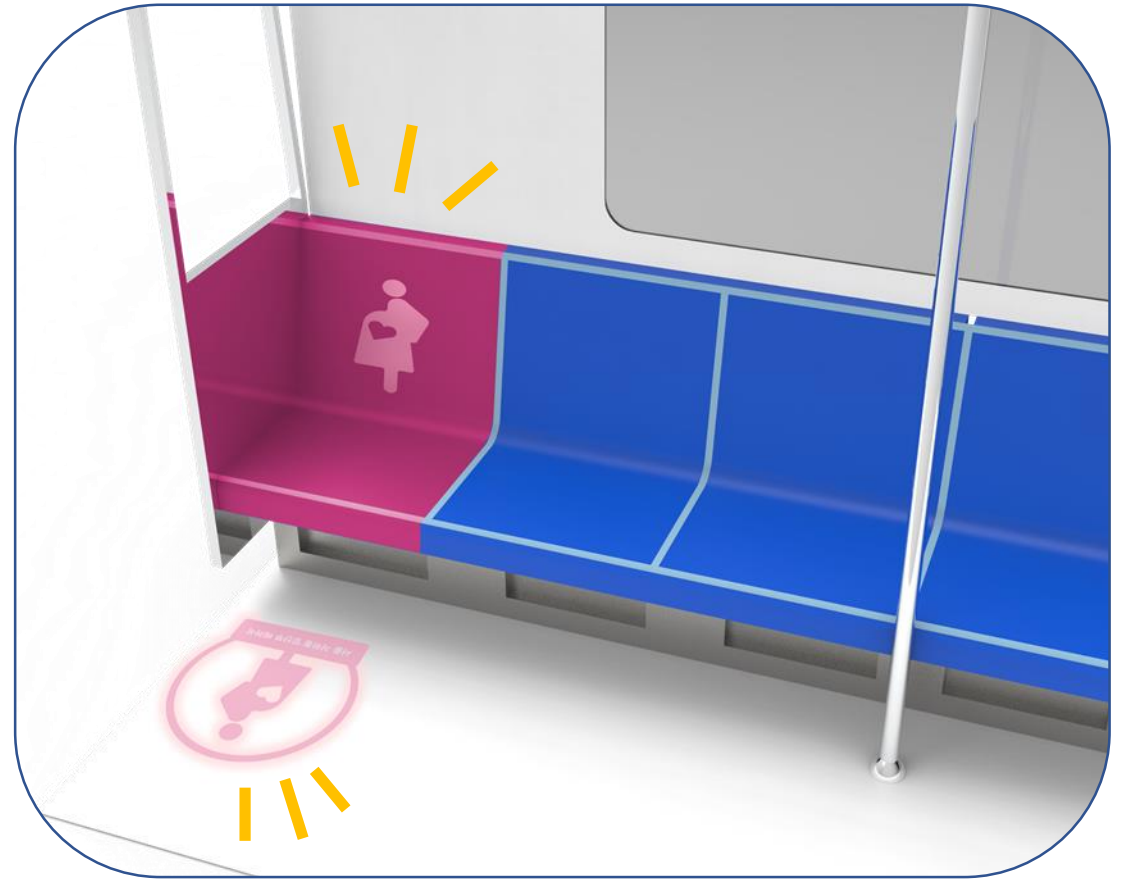
가격

임산부 배려 좌석

미래 첨단 섬유이기때문에 정확한 가격 측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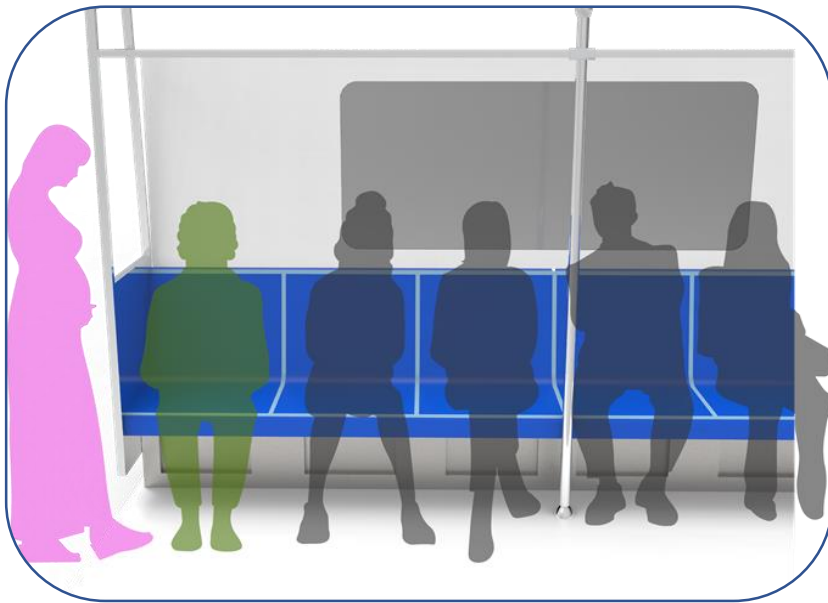
스마트LED조명

약 350,000 정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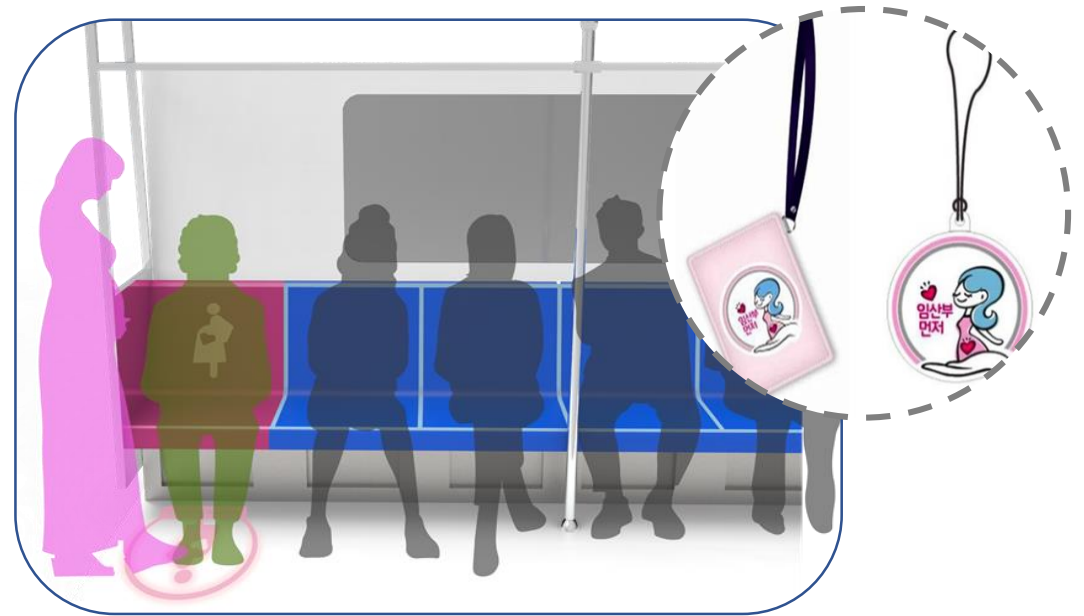
근처에 있는 임산부 배지를 인식 후 좌석 색상이 변함과 동시에 바닥에 임산부 아이콘 불빛이 들어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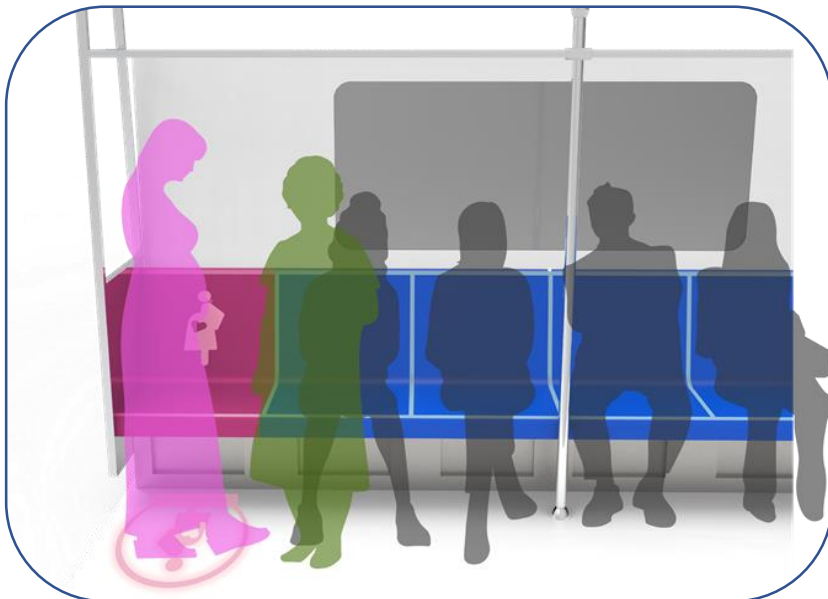
좌석에 앉아 있는 D 옆 임신부가 지나가고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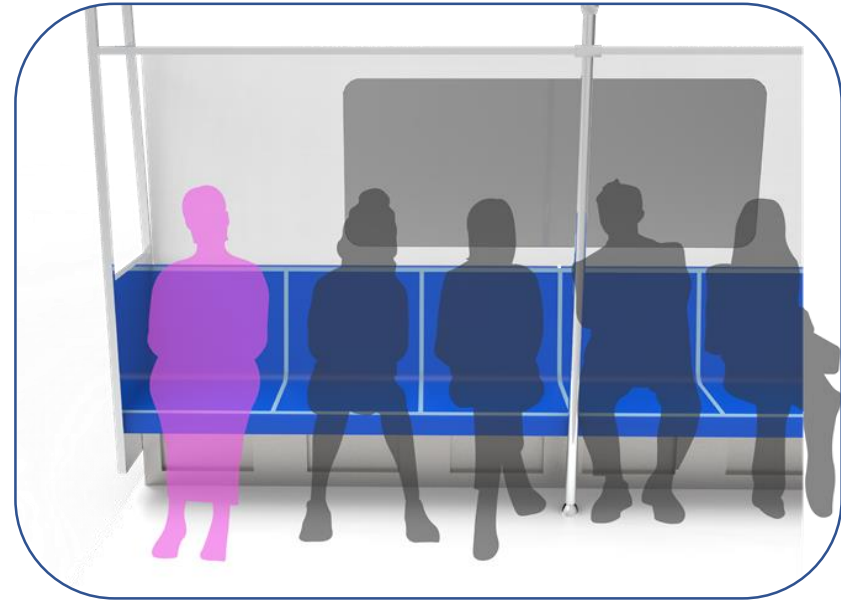
임산부 배지를 인식한 좌석이 색상을 변경함과 동시에 바닥에서 임신부 아이콘 불빛이 켜진다.

#3



이를 본 D씨는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4



임산부가 착석 후 좌석의 색상과 바닥의 불빛이 꺼진다.